

# 공동자원과 황금률, 제주의 바다밭 Commons, the Golden Rule and Sea Fields in Jeju

최현

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

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장

## 서론

- 오스트롬의 공동자원 이해는 적절한가?
- 사라진 공동자원을 되찾는데 오스트롬의 공동자원 개념은 도움이 되는가?
- 공동자원은 자원의 물리적 속성으로 인해 공동자원의 지위를 가지는가?

## 서론

- 본 발표에서는 오스트롬이 주장했던 것처럼 자원이 지닌 자연적, 물리적 속성이 아닌 사회적 속성 때문에 공동자원이 된다고 주장
- 제주의 공동자원 관리사례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
- 공동자원 관리를 지배하는 원칙은 “황금률”과 “인간존중”의 원리

## 오스트롬의 공동자원 비판과 대안적 정의 Criticism and alternative definition of Elinor Ostrom's commons

<표-1> Elinor Ostrom의 자원 분류  
 <Table 1> Ostrom's classification of resources

	배제가능(Excludable)	배제불가능(Non-excludable)
<b>Subtractable 감소</b>	<b>사유재(private goods)</b> 음식, 옷, 가구, 자동차 등 food, clothes, furniture, car	<b>공동관리자원 (Common Pool Resources):</b> 하천, 호수, 지하수, 바다, 대기 등 river, groundwater, sea, air
<b>Non-subtractable 비감소</b>	<b>회원재(club goods)</b> 케이블 TV 방송, 지적 재산, 판매 소프트웨어 등 cable TV, sales software, intellectual property	<b>공개재(public goods)</b> 치안, 인터넷, 일기예보, 공개 소프트웨어(Shareware) 등 public order, Internet, weather forecast, shareware

출처: (오스트롬, 2010: 70-75; 이명석, 2006: 254; 최현, 2013a; 2013b; 2016; 최현, 김선필, 2014; 오스트롬 & 오스트롬, 1977)



사회적 속성과 공동관리자원

- 코헨(1993)은 자원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는 것의 중요성을 지적함. 자원의 물리적 속성이 자원을 구분하는 데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, 자원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궁극적으로 규정하고 기준이 되는 것은 자원을 둘러싼 인간 관계



## 사회적 속성과 공동관리자원

- 공동자원은 물리적, 경제적으로, 사물의 속성이나 자원 소유자의 입장에서 정의되어서는 안되며 윤리학적, 사회학적으로, 다시 말해 사회적 인간 또는 시민의 입장에서 재정의해야 함

## 사회적 속성과 공동관리자원

- 공동자원이 공동자원인 것은 어떤 자원이 그 자체로 배제불가능성을 가졌거나 배제를 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 그것을 독점하면 잠재적 이용자들이 생존하기 어렵거나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않기 때문

사례)

- 제주에서 경작되지 않는 고사리
- 하이난에서는 수확 후 다른 사람 소유의 논에서 나물을 캐 수 있다.(아키미치, 2004)
- 태국과 캄보디아에서는 수확 후 다른 사람 소유의 논에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.(아키미치, 2004)
- 솔로몬 제도에서 손을 부지런히 놓리는 사람은 투지를 이용할 수 있다.(다나카, 2008)

## 사회적 속성과 공동관리자원

-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나는 자원 자체의 자연적, 물리적 속성인 배제불가능성과 감소성을 근거로 인간의 자원을 분류하는 것에 반대한다. 앞서 언급했듯이 사회적 속성인 독점정당성과 경합성을 근거로 자원을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.

## 사회적 속성과 공동관리자원

-이에 따라 나는 공동자원을 ‘잠재적인 사용자를 배제하고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자연적 자원이나 인공시설’로 그 중 경합성이 있는 자원을 공동관리자원으로 수정해 정의한다.

## 공동관리자원에 대한 새로운 정의

경합성 크다 high rivalry			
<b>독점정당성 크다</b> (strong legitimacy of monopoly)	<b>사유재</b> Private goods 가구, 자동차, 휴대전화, 사치품 furniture, automobile, mobile phone, luxury item	food, clothes 음식, 옷 ↓ →	land, house 토지, 집 ↑ ↔
	인터넷망 ↑ Internet network ↑		공동관리자원 Common pool resources (CPRs): 지하수, 수리시설 groundwater, irrigation facility  national park ↑, air ↑, public order ↑, national defense ↑
	<b>요금재</b> Club goods cable TV, corporate software	개인용 소프트웨어 personal software →	<b>공개재</b> Public goods: open software, knowledge, Internet
경합성 작다 low rivalry			

-출처: (Choe & Yun, 2017)

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  
 JEJU NATIONAL UNIVERSITY SSK Research Center on the Commons and Sustainable Society

## 새로운 정의를 뒷받침하는 제주의 사례들 Jeju Cases that support the new definition

## 새로운 정의를 뒷받침하는 제주의 사례

- 제주 해안 어업경영의 경우 내 주장을 뒷받침하라 수 있다. 여기에서 나는 해녀들이 해산물을 수확하는 바다밭에 초점을 맞춘다.
- 바다밭 관할권은 개인이 아니라 인근 마을의 합의에 따라 할당하며, 마을 사이의 합의는 관습에 따른 것인데, 이러한 관습을 들여다보면 공동자원 관리의 원칙을 확인할 수 있다.

## 새로운 정의를 뒷받침하는 제주의 사례

- 나는 근본적으로 공정성과 정당성이라는 원칙이 바로 바다밭의 관리에 작동한다고 본다. 이는 황금률로 구체화될 수 있음. 마을들은 황금률을 반영한 지역의 규칙에 따라 바다밭의 경계를 정하고 상호 강제. 공동자원의 관리는 마을회나 해녀회가 맡는데, 각 마을의 바다밭 이용 규칙 역시 인간의 삶에 대한 존중과 공정성에 입각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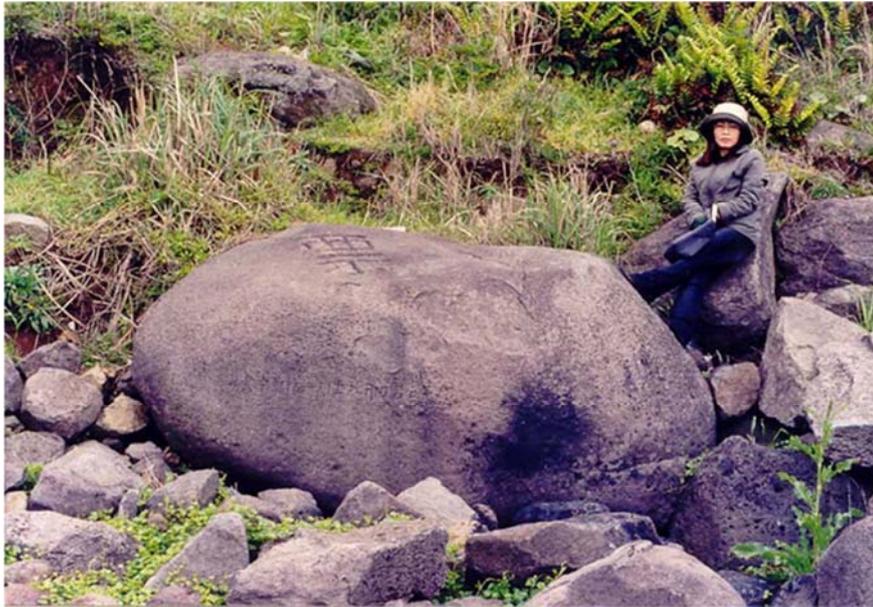
## 새로운 정의를 뒷받침하는 제주의 사례

- 마을 해녀들도 마을의 공동작업(바다밭 정화, 해초 수확 등)에 참여하지 않으면 물질을 할 수 없다.
- 하지만 노인에게는 공동작업의 의무를 지우지 않으며, 노인의 자급을 돕기 위해 노인들만 물질을 할 수 있는 할망바당을 지정

## 새로운 정의를 뒷받침하는 제주의 사례

- 마을에 귀속돼 있는 바다밭은 마을의 공동자원으로서 많은 혜택을 가져다 주며, 해녀들은 자기 마을에 귀속된 바다밭에서만 물질을 할 수 있음
- 바다는 마을 주민들에게 의무도 부과한다. 바다에 죽은 시신이 바람에 밀려 해변에 오면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처리해야 함, 이를 영장(永葬)이라 한다. 마을이 관리하는 해변에 올라온 시신을 치우지 않는 것은 그 마을이 관리권을 포기한다는 선언

# 새로운 정의를 뒷받침하는 제주의 사례



< 그림 1 > 가매팡 사진

# 새로운 정의를 뒷받침하는 제주의 사례



< 그림 2 > 화북동 지도

# 새로운 정의를 뒷받침하는 제주의 사례



<그림 3> 지귀도 주변 지역(붉은 부분이 위미리)

## 결론

- 오스트롬의 공동자원론은 자원의 관리 방식의 차이가 자원의 물리적 속성인 감소성과 배제불가능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잘못된 전제로부터 출발한다.

## 결론 Conclusions

- 동일한 자원이 사회적 조건에 따라 요 금 재 가 되 기 도 하 고 공동관리자원(또는 공개재)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설명하지 못한다.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자원은 물리적 속성이 아니라 사회적 속성에 의해 정의되어야 한다.

## 결론

-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어떤 자원을 독점할 수 있는 정당성을 갖지 못할 때 그 자원은 공동자원이 된다.
- 제주도의 바다밭 관리 사례는 공동자원이 가지는 독점부당성에 관한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.

## 결론 Conclusions

- 제주 어촌에서 이러한 실천, 행위는 바로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자연을 지키는 것이다. 따라서 나는 공동자원이 라는 개념이 황금률(공정성과 인간의 생명 존중)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.

## 결론 Conclusions

- 나의 새로운 정의는 공동자원을 지키고 잃어버린 공동자원을 되찾기 위한 사회운동을 뒷받침한다.
- 지역의 지식, 공정성에 대한 상식, 황금률은 국가의 법과 판례를 변화시킨다(카프라·마테이, 2019)
  - 사례: 제주의 지하수 공적 관리